

코트라, 신재생에너지 일본상담회 개최

코트라는 7월27-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절전과 신·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월25일 발표했다.

태양광 발전 및 스마트 그리드 등 신·재생에너지와 녹지화 기술, LED(Light Emitting Diode) 및 절전 아이디어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53사가 참가한다.

특히, 건물 옥상이나 사무실 내부를 녹지로 꾸며 실내 온도를 낮추는 녹지화 기술은 일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코트라는 전했다.

코트라 관계자는 “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 등의 신·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<재생에너지 특별조치 법안>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3월11일 동북지방 대진지 여파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으로 기업의 절전을 의무화하는 <전력 사용 제한령>이 발동돼 LED 조명 등 절전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1/07/25>